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헤드라인뉴스 도시 방문객이 더 오래 머물도록 온라인으로
다양한 생활정보 제공

도시계획·주택 불법건축물 시민 신고제 운영

도시교통 중국 최초로 자율주행차의 상업운행서비스 허가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북·중·남미〉

미국

로스앤젤레스	김민희
시카고	강기향
올랜도	박혜진
하와이	임지연
휴스턴	이경선

캐나다

에드먼턴	장지훈
토론토	고한나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	한 울
------	-----

〈아시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홍성아
--------	-----

인도

뉴델리	박원빈
	박효택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박재현
------	-----

중국

광저우	손지현
베이징	정민욱
충칭	모종혁
칭다오	강경이

〈유럽〉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장한빛
-------	-----

독일

베를린	홍남명
프랑크푸르트	이은희

스페인

바르셀로나	진광선
-------	-----

이탈리아

로마	서동화
피렌체	김예름

프랑스

파리	김나래
----	-----

도시 방문객이 더 오래 머물도록 온라인으로 다양한 생활정보 제공

이탈리아 피렌체시 / 문화·관광

피렌체시는 관광객, 유학생, 사업가, 스타트업 개발자 등 도시를 잠시 방문하는 사람들이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Be.Long’ 온라인 서비스를 시행

‘Be.Long’ 프로그램의 배경 및 목적

-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산업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 위함
 - 기존의 관광 홍보 전략에서 탈피해 새로운 인센티브로 관광객을 유치할 필요성 대두
 - 획일화된 단체관광 서비스의 한계를 경험한 뒤, 도시의 다양성을 위해 개인들을 유치하려는 市정부의 노력
- ‘모던함’을 새로운 도시 정체성으로 삼으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유럽 청장년층의 1/3이 이동이 자유로운 스마트 워킹(smart working)을 함에 따라 창조력 있는 젊은 세대를 도시로 유입시키고자 함
- 관광도시로서의 명성을 넘어 ‘머물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고자 함
 - 장기간 정착을 원하는 사람들의 수요에 비해 생활정보 제공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에 대응

주요 내용

- ‘오래 머무는 방식, 피렌체 방식(Long Stay, The Florence Way)’이라는 모토로 ‘Be.Long’ 프로그램 시행
 - ‘Be.Long’ 서비스는 주거지, 교통수단, 비자, 의료보험, 휴가 정보 등 장기간 거주 시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곳에서 찾을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 주 대상은 관광객, 유학생, 교환학생, 사업가, 스타트업 종사자, 스마트 워커(smart worker), 블로거,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e) 등 단기간 피렌체시에 머물거나 머물 계획이 있는 사람
 - 학업/직업/일상생활에 유용한 팁, 관광 정보 등 주제별로 자세한 정보를 제공
 - 피렌체 대학교, 사립 교육기관, 언어교육원과 연합하여 학업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부동산 중개업체와 협업하여 좋은 위치의 아파트, 원룸 등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
- 해외여행 블로거, 스타트업 종사자 등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코워킹(co-working) 공간 업데이트
- 피렌체 시민들만이 누리는 할인카드 발급도 해주고, 문화 서비스 등 유용한 일상 생활 정보를 공유

정책 평가 및 의의

- 외국인들이 도시에 깊이 동화·흡수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음
- 도시가 진화해나가는 창조적인 방법이라는 평가도 있음
 - 피렌체市の 다양한 공공기관, 회사, 학교, 상점들과 협업한 덕분에 시민들 역시 경제적, 사회적 이득을 얻음
 - 도시의 유용한 정보를 한곳에 모아 데이터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음

<https://www.firenzetoday.it/cronaca/affitti-piattaforma-belong.html>

<https://www.feelflorence.it/it/dalle-redazioni/belong>

<https://belong.destinationflorence.com/>

김 예 림 통신원, yereumkim@gmail.com

중국 최초로 자율주행차의 상업운행서비스 허가

중국 충칭시 / 도시교통

충칭市 용촨區는 중국 도시 중에서는 최초로 사람이 운전석에 타지 않고 인공지능(AI)시스템이 모든 도로의 환경을 인식하여 주행하는 완전한 자율주행차의 정식 상업운행서비스를 허가. 자율주행차 호출서비스업체인 Apollo Go는 중국 전체에서 3,200만km의 시범 상업운행서비스 기록을 갖고 있으며, 용촨區에서 7개월간 14대가 운행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음. 용촨區는 區 전역을 커버하는 5G 기지국을 건설하고, ‘스마트도시디지털지휘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국 최초로 자율주행차의 정식 상업운행서비스를 허가

- 충칭(重慶)시 용촨(永川)구와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가 중국 최초로 자율주행차의 정식 상업운행서비스 개시를 허가
 - 2022년 8월 8일 용촨區 정부는 바이두(百度) 그룹¹⁾ 산하의 자율주행차 호출서비스 사업자인 ‘뤄보콰이파오(蘿蔔快跑, 영문명 Apollo Go)’에게 운전석에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고 인공지능(AI)시스템이 전 과정을 주행하는 완전한 자율주행 호출차의 상업운행서비스를 허가
 - Apollo Go는 고객이 전용 모바일 앱을 통해 자율주행차를 호출한 뒤 승차하여 이용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요금 결제도 차량에서 하차할 때 전용 앱의 모바일 결제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이뤄짐
- Apollo Go는 완전한 자율주행차 개발 선도업체로, 이미 4,000여 개의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중국 전체에서 3,200만km의 시범 상업운행서비스 기록을 갖고 있음
 - 2021년 10월에 베이징(北京)시에서 완전한 자율주행 호출차의 시범 상업운행서비스를 처음 시작
 - 충칭市 용촨區에는 2021년 12월에 진출한 뒤,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14대의 자율주행 호출차가 시범 상업운영허가증을 획득하여 7개월간 시범 운영하면서 시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음
- 중국에서 자율주행차는 ▶조건부 자율주행차, ▶고도 자율주행차, ▶완전 자율주행차

1) ‘바이두(百度)’는 중국 최대의 검색 사이트로, 시장 점유율이 무려 80%에 육박하여 ‘중국의 구글’과 같은 위상을 가짐. 알리바바(阿里巴巴), 텐센트(騰訊)와 함께 중국을 대표하는 3대 인터넷업체로, 외국에서는 이 세 기업의 첫 글자를 따서 ‘BAT’라고 불림

등 3단계로 구분하는데, Apollo Go의 상업운행서비스는 ‘완전 자율주행차’ 단계에 해당

- ‘완전 자율주행차’는 운전석에 운전자가 타지 않고 인공지능시스템이 모든 도로의 환경을 인식하여 전 과정을 주행하는 차량
- ‘조건부 자율주행차’는 인공지능시스템이 설계에 따라 세팅된 노선을 주행하되, 주행 중 다른 목적에 따라 기존에 설계된 경로가 아닌 다른 길로 갈 경우 탑승한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 주행하는 차량
- ‘고도 자율주행차’는 인공지능시스템이 운행 설계에 따라 주행하다가, 도로에서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탑승한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 주행하는 차량



[사진] 충칭시 용촨區의 도로에서 시범 상업운영 중인 완전 자율주행차 (출처: 진타이뉴스)

- 현재 ‘완전 자율주행차’는 형식적으로 운전석에 운전대,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 브레이크(brake) 등 각종 장치가 장착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상 필요 없는 상태임
- 바이두는 빠르면 2023년에는 ‘완전 자율주행차’의 양산차(量産車)를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음

자율주행차의 상업운행을 선도하기 위한 용촨區의 노력

- 용촨區 정부는 2021년 11월 바이두 그룹과 자율주행차 상업운행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맺고,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체계적인 준비를 해왔음
- 용촨區 정부는 관할 내 모든 향(鄉)·진(鎭)을 커버할 수 있는 5G 이동통신 기지국과

기지부스를 설치하여,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모든 정보를 바로바로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

- 5G 이동통신을 원활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기존의 3G나 LTE보다 훨씬 더 많고 촘촘하게 기지국과 기지부스를 설치하여 부족한 통신망과 불안정한 접속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
- 이를 통해 도로 위의 교통 상황을 보다 체계적이고 정밀하게 관리하는 종합센터인 용촨區 정부 스마트도시디지털지휘센터(智慧城市數字智慧大廳)를 개소해 운영



[사진] 도로 위의 교통 상황을 관리하는 용촨區의 스마트도시디지털지휘센터 (출처: 상계)

- 8월 7일에는 지방의회격인 충칭市 용촨區 인민대표대회(人大)의 상무위원회가 ‘스마트온라인자동차 선행정책 도로테스트와 응용관리시행판법(智能網聯汽車政策先行區道路測試與應用管理試行辦法)’을 통과시키고 그다음 날부터 시행함으로써, 완전한 자율주행 호출차의 정식 상업운행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
 - 해당 조례는 완전한 자율주행차의 운영을 허용하는 중국 최초의 지방정부 조례인 ‘선전(深圳)시 스마트온라인자동차관리조례(深圳市智能網聯汽車管理條例)’를 참조해 만듦(※ 관련 내용을 세계도시동향 제531호(운전자 없이 운행하는 ‘완전 자율주행차’ 조례 제정)에서 소개)

<https://baijiahao.baidu.com/s?id=1740747123030629158>
<https://www.autohome.com.cn/tech/202208/1257418.html>
<https://baijiahao.baidu.com/s?id=1736867845640085225>
http://news.sohu.com/a/523387728_121124365

모종혁 통신원, jhmo71@naver.com

불법건축물 시민 신고제 운영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시 / 도시계획·주택

쿠알라룸푸르시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제고와 불법 증·개축 근절을 위해 시민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발표. 또한 건축물 개조 기한을 승인일로부터 1년으로 제한해 공사 연장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차단

배경 및 목적

- 불법으로 증·개축한 건축물 문제
 -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 발생
 - 불법으로 증·개축한 건축물에 대해 시정 명령 및 이행강제금 최대 2만 5천 링깃을 부과
 -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강제 철거를 집행하고 집행비를 부과
 -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축물 소유주는 최대 2만 링깃을 납부해야 함
 - 2021년 쿠알라룸푸르시는 25개의 시설물을 철거
- 불법 증·개축으로 인해 역사적 가치 훼손 및 시민 안전 위협
 - 불법적인 공간 개조로 훼손된 건축물은 원형 복원이 불가능해 역사적 가치를 훼손
 - 홍수 등 재난 발생 시 필요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았거나 화재에 약한 자재나 소재를 사용해 안전에 취약
 - 인도(人道)를 포함한 도로 무단점용은 시민들의 보행권 침해 및 안전 위협

주요 내용

- 말레이시아 도로배수건축법(Street, Drainage and Building Act 1974) 시행
 - 도로배수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 증·개축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부기관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가 의무
 - 도로배수건축법 제11조에 따르면, 건축물을 불법개조하는 경우 원상복구를 위해 최대 2만 5천 링깃의 이행강제금 부과
 - 도로배수건축법 제12조에 따르면, 건축물을 용도 변경 절차를 밟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만 5천 링깃의 벌금을 부과
 - 이를 기한 내 시정하지 않는 경우 1일 100링깃의 벌금 부과

- 불법건축물 시민 신고제 실시
 - 시민 누구나 불법건축물로 의심되는 경우 신고 가능
 - 불법 증·개축이 의심되는 건축물을 발견할 경우 쿠알라룸푸르시청을 방문해 위반행위 여부 확인 가능
 - 건축물 소유주의 동의 없이도 설계도를 무료로 발급받고, 신고할 수 있음
- 건축물 개조 기한 제한
 - 2022년부터 건축물 개조 기한을 기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1년으로 제한
 - 건축법 1984(Uniform Building By Law 1984)에 건축물 개조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공사가 무기한 연기되는 사례 발생을 막기 위함임
 - 2022년부터 건축물 개조 기한 갱신은 최대 3회까지 가능하며, 접수비는 1회 100 링깃

정책 평가

- 시민 신고제로 건물 내부의 불법 증·개축 사례 적발 가능
 - 건물 내부 개조는 별도의 신고나 제보가 들어와야 위반 사례 확인이 가능
 - 시민 신고제가 불법행위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 건축물 개조 기한 제한으로 공사가 무기한 연기되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
 - 건축물 개조 기한을 1년으로 제한해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粉塵) 발생 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https://www.thestar.com.my/metro/metro-news/2022/08/20/illegal-renovations-cause-flooding>

<https://www.edgeprop.my/content/1903339/dbkl-owners-may-need-pay-rm20000-demolition-illegal-extensions>

<https://www.thestar.com.my/news/nation/2022/08/16/new-dbkl-rule-sets-time-limit-on-home-renovations>

홍성아 통신원, tjddk4277@gmail.com

세계도시동향 제534호

발행인 박형수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22년 10월 10일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 개발과 도시 관련 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들이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실 출판팀 세계도시동향 담당
(trees29@si.re.kr)에게 연락 바랍니다.

